

지스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아모레퍼시픽과 '건강장수' 분야 연구협력

- 인체적용시스템 특화 건강기능식품의 과학적 검증 연구 협력 추진 예정
- "바이탈뷰티 제품 연구 등 건강장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



▲ 지난 12월 23일(금)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지스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와 아모레퍼시픽이 건강 장수 분야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센터장 오창명·의생명 공학과 교수)가 지난 12월 23일(금) (주)아모레퍼시픽과 건강장수(Healthy Aging) 분야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건강장수'는 인류의 수명이 길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아프면서 오래 사는) '유병장수'가 아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 수명 (건강하게 살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서의 수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며 등장한 개념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기존 건강장수(Healthy Aging) 연구를 더욱 체계화하고, 이를 제품화하기 위한 응용연구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항노화, 마이크로바이옴, 이너뷰티 등 건강장수 분야의 연구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령친화산업 발전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 R&I센터는 최근 성균관대학교 류동렬 교수팀과 '식이 제한을 통한 장수 기전과 그 핵심 성분' 연구 결과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게재한 바 있다. 특히 바이탈뷰티의 인삼열매 앰플 명작수 제품을 활용한 대규모 임상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오창명 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고도화된 인체적용시험 평가 시스템을 통해 아모레퍼시픽 제품의 우수성을 밝히는 과정에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다"며 "앞으로 아모레퍼시픽과의 공동 연구와 제품 개발을 통해 **건강장수를 구현할 수 있는 국제 기준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아모레퍼시픽 박영호 R&I 센터장은 "이번 연구 협약은 아모레퍼시픽의 건강장수 제품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만나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협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모레퍼시픽은 **건강장수 산업의 글로벌 성장에 맞춰 효능 소재 개발을 더욱 강화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오창명 센터장, 아모레퍼시픽 박영호 R&I(Research & Innovation) 센터장, 헬스케어연구소 김완기 소장, 성균관대학교 기초의학대학원 류동렬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스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돌봄 로봇, 화장품, 헬스케어 제품 등의 리빙랩 기반 사용성 평가가 가능한 공간 및 장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매월 약 5천여 명의 시니어들이 제품 체험 및 사용성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동형 로봇의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및 사업 참여 등 다양한 연구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고령친화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